

내수 점유율 높인 내셔널지오그래픽... 아우터 들고 해외로

11월 2주차 아우터 매출 49% ↑
라이브커머스 하루 매출 6억
내년 3월까지 中 합작법인 설립

4분기 더네이처홀딩스가 운영하는 브랜드 내셔널지오그래픽 어패럴(이하 내셔널지오그래픽)의 국내 겨울 주요제품 판매가 호조를 맞고 있다. 내수 아웃도어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 중인 내셔널지오그래픽은 내달 중국 등의 해외 진출을 본격화한다.

28일 더네이처홀딩스에 따르면, 내셔널지오그래픽의 11월 2주차 겨울 아우터 매출은 전주 대비 49% 성장했다.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는 33% 상승한 수치다. 대표 겨울 아이템인 '리머 양면 리버시블 플리스 후디 다운 점퍼', '타루가 덕다운 점퍼', '카이만 구스다운 롱패딩 점퍼' 등의 판매가 크게

늘며 매출 상승을 견인했다.

이례적인 가을 한파가 찾아온 지난 달 매출도 상당한 폭으로 늘었다. 내셔널지오그래픽의 지난 10월 전체 매출은 전년 대비 18% 증가했으며 아우터 판매는 76%가 늘었다.

뿐만 아니라 내셔널지오그래픽은 이달 진행한 라이브 커머스 방송에서 하루 만에 6억원의 매출을 돌파했다. 내셔널지오그래픽이 지난해부터 라이브 커머스 전담팀을 꾸려 콘텐츠 노하우와 큐레이션 전문성을 강화한 효과다.

이번 방송은 내셔널지오그래픽이 무신사와 진행한 첫 라이브로, 지난 3일 무신사의 라이브커머스 전문 채널 '무신사 라이브'를 통해 단독 송출됐다.

이날 내셔널지오그래픽은 방송 한 시간 만에 당초 목표 대비 172%를 달

성하며 4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방송 직후에도 상품 랭킹 TOP 10 중 9개를 점령하는 등 소비자의 관심을 모으며 라이브 외 매출로 2억1000만원을 추가해 해당 브랜드 라이브 커머스 사상 하루 매출 최고액을 기록했다.

내셔널지오그래픽은 지난해 4월 패션 브랜드 중 최초로 네이버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시작한 이후로 분기당 1~2회 꾸준히 라이브를 운영해왔다. 라이브 방송의 호스트로 메인 모델인 정혁부터 캠핑 전문 유튜버 네미누까지 다양한 분야의 인플루언서들을 기용, 회차별 효과를 측정하며 효율성을 높이는 중이다. 이로 인해 라이브커머스 쪽 성과도 좋아지고 있어 최근 4개월 기준으로 순방문자 수는 작년보다 180% 상승했고 매출은 1.4배 증가했다.

내수 시장에서 주요 제품 판매율 신

장과 라이브 방송 확장에 힘입은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중국 진출을 앞두고 있다. 더네이처홀딩스는 중국 현지 파트너사 베스트셀러그룹과 12월 중 위챗과 틱톡을 통해 중국시장 온라인 판매를 개시할 예정이다. 현재 내셔널지오그래픽의 대표 샘플이 중국에 보내진 상태로, 현지 온라인 판매를 먼저 시작해 가격이나 제품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확인할 계획이다.

박영준 더네이처홀딩스 대표는 "올해 안에 중국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고 내년 3월까지 합작법인 설립을 마무리한 뒤 2022년 하반기에 중국 현지 오프라인 매장을 순차적으로 열 것"이라며 "아시아는 물론 중동 쪽 진출도 염두에 두고 있어 코로나19가 진정되는 내년에는 더 적극적인 해외진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내셔널지오그래픽의 무신사 라이브 관련 화면 캡처. /더네이처홀딩스

올 겨울 '클래식 소재·원마일웨어' 뜬다

W컨셉, 겨울 패션 트렌드 공개
보온성·맵시 높인 상품 '주목'

W컨셉은 이 달 구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 겨울 패션 트렌드 키워드로 'C.O.L.D.'를 도출했다고 28일 밝혔다.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며 판매가 늘고 있는 겨울철 패션 아이템을 바탕으로 대표 키워드를 선정했다. 클래식 디자인 상품 구매가 늘고 편안한 '원마일웨어' 관심이 높으며 긴 기장을 선호하고 보온성과 맵시를 배로 높인 상품이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C(클래식)'와 'O(원마일웨어)'가 뜬다

W컨셉에 따르면 올 겨울은 기본적인 디자인과 클래식한 소재로 만든 의류가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코트류는 어깨부터 밑단까지 일자로 떨어지는 테일러드(예복) 스타일의 '더블 코트'와 목 부분에 퍼 디테일을 적용한 '투웨이 코트' 상품 구매가 가장 높았다. 기본 코트 디자인에서 벨트로 포인트를 주거나 안감에 킨팅(누빔)을 덧대 보온성을 높인 상품도 함께 인기를 끌고 있다. 흔히 '골덴'으로 알려진 '코듀로이' 소재 상품도 구매가 늘고 있다. 두툼한 소재에 골이 있어 투박하다는 인식이 강했



W컨셉이 올 겨울 패션 트렌드 키워드를 'C.O.L.D.'로 발표했다. /W컨셉

지만 최근 다양한 색상을 입히고 실루엣이 더해진 상품이 다수 출시되며 선호도가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자택에서 1마일권 내에 착용되는 의복이라는 뜻의 '원마일웨어'에 대한 인기도 이어질 전망이다. W컨셉에서 스셔츠, 스판츠 품목의 신장률이 110%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목 아래부터 가슴팍까지 지퍼가 내려오는 디자인의 오버핏 풀오버 니트는 어떤 의류와도 조화를 이룰 수 있어 남녀 모두

에게 수요가 높다.

◆'무릎 아래 긴 기장'이 '히트'

원피스나 코트 등 여성 의류는 길면 길수록 잘 팔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맥시 드레스는 몸매를 드러내는 유선형의 머메이드 라인이나, 어깨부터 다리까지 툭 떨어지는 H라인 등이 인기를 끌며 벨벳, 폴리에스테르 등 다양한 소재로 출시됐다. 이와 함께 매치할 수 있는 롱코트도 인기 아이템이다. 긴 기장감과 넉넉한 핏으로 캐주얼과 포멀룩 등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로브 코트'가 대표적이다. 발목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각선미를 돋보이게 하는 롱부츠도 잘 팔린다.

보온성과 디자인을 두배로 높인 '바라클라바'나 '트루퍼햇' 등 모자류도 인기다. 머리부터 목까지 얼굴을 감싸는 모자인 바라클라바는 영국군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 얼굴을 덮는 니트 모자를 만든 것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 겨울에는 패션 아이템으로써 울, 캐시미어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바라클라바가 눈에 띈다. 일명 '군밤 장수 모자'로 알려진 트루퍼햇은 군에서 착용하던 보온 목적의 모자로, 최근에는 다양한 색상의 니트 소재와 굵은 짜임 디자인이 더해졌다. /원은미 기자

메종 글래드 제주 제주향토음식 품평회 경연 수상

WACS 국제요리 경연대회

호텔 메종 글래드 제주가 '제5회 제주향토음식 품평회 WACS 국제요리 경연대회'에서 전시경연 부문에 금상과 동상, 라이브경연 부문 동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조리학과 계열 학생, 서울과 제주도내 호텔 및 일반 요식업소 등 총 60팀의 다양한 참가자들이 품평회 전시경연과 라이브경연 2개 부문으로 대회를 치르며, 세계조리사연맹에서 인증한 국제요리대회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사에 따른 점수 평가를 통해 수상자가 결정됐다.

메인요리 4종, 에피타이저 전체요리 4종 등 제주향토음식을 주제로 한 품평회 전시경연 부문에서 메종 글래드 제주의 오양택 셰프와 광보연 셰프가 금상, 김창규 셰프와 강창용 셰프가 동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핑크리 콩 피요리' '제주흑우 웰빙토요리' '부채새우 무스요리' 등을 포함한 제주 식재료



메종 글래드 제주의 제5회 제주향토음식 품평회 WACS 국제요리 경연대회 수상작. /글래드 호텔앤리조트

를 이용한 다양한 메뉴였다.

메인요리 1종, 에피타이저 1종을 선보이는 진행한 라이브경연 부문에서는 메종 글래드 제주의 고성범 셰프와 강터에 셰프, 황인환 셰프와 박준영 셰프가 각각 동상을 수상했다. 메뉴는 한라봉 그레이스를 곁들인 '등갈비요리', '제주 돌문어 카르파치오', '방어요리', '딱새우요리' 등을 포함한 것이었다. /원은미 기자

휴젤 '보툴렉스', 판결 전까지 판매 지속

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휴젤이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한 '잠정 제조판매 중지명령, 회수폐기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휴젤에 내린 행정처분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0일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 판매했다는 이유로 보툴렉스 4종 제품에 대한 품목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 절차를

추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휴젤은 즉각 서울행정법원에 '잠정 제조판매 중지명령, 회수폐기명령에 대한 취소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어 11일 오전 해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잠정처분도 신청했으며 이는 당일 인용되었다.

휴젤 관계자는 "당사는 품질과 신뢰에 바탕을 둔 경영 철학으로 국내 1위 기업으로 성장해왔으며 세계 시장에서 K특산과 K바이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번 행정처분은 유통 방식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발생한 것이므로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소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한림대강남성심병원 인공관절수술 로봇 도입

국내 대학병원 중 두 번째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은 인공관절수술로봇인 '마코'를 도입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한 마코 로봇은 고관절 전치환술과 슬관절 전치환술·부분치환술에 대해 미국식품의약국(FDA)의 동시 승인을 받은 유일한 로봇이다.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은 국내 대학병원 중 서울대학교병원 다음 두 번째로 도

입했다.

마코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로봇 팔'로 구성되어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사전 CT 촬영을 통해 얻은 환자의 무릎 정보를 3D 프로그램으로 구현해 절삭 부위, 삽입할 인공관절의 크기와 각도, 위치 등을 정확하게 계산해 집도의에게 제시한다. 이후 숙련된 집도의가 로봇 팔을 잡고 환자의 무릎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수술하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에도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

며 환자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수술을 진행할 수 있다. 마코가 인공관절 수술의 정확도를 향상시켜 인공관절의 수명을 늘리고, 안전구역(헵틱존)을 형성해 절삭 범위 이외에 다른 부위의 손상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 적은 절개로 출혈을 최소화해 수술 후 통증 감소와 빠른 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은 이번 로봇 도입으로 고관절 파트는 센터장인 정형외과 황지호 교수가, 슬관절 파트는 부센터장인 정형외과 김중일 교수가 맡아 적은 오차 범위의 정확도 높은 인공관절 수술을 집도한다. /이세경 기자